

서울주보 생명의 말씀 (2009. 12. 13.)

의인(義人) 안에 태어나시는 주님

구 요비 읍 신부

오늘은 전례력으로 ‘장미주일’이어서 사제의 제의색은 연분홍 장밋빛으로 1 년 중 가장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장미는 ‘기쁨’을 상징하니 말씀의 전례 안에서 메아리 치는 ‘기쁨’과 상통합니다.

성경 안에서 기쁨은 먼저 하느님 안에서 용솟음치는 기쁨입니다(필리 4,4). 불어 성경은 제 1 독서를 ‘주님은 축제의 날처럼 기쁨으로 환성 올리며 너를 위하여 춤을 추시리라!’(스바 3,18)로 표현합니다. 동방 교회의 한 교부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며 하느님의 내적 생명 안에 순환운동(perichoresis)이 있다고 통찰하셨는데, 이 단어는 회랍어로 ‘윤무(口舞)’ 혹은 ‘둥글게 춤추다’에 해당하는 ‘perichoreuo’와 통한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에 비추어 볼 때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과 더불어 춤추시며 당신의 신적 생명인 기쁨을 통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이 먼저 인간과의 만남에 가슴 설레이며 기뻐하십니다. 사실 ‘기쁨’이란 우리가 혼용하는 즐거움, 쾌락과는 달리 인간이 높은 정신적인 상태에서 맛보는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보다 높은 능력의 단계에서 자기가 알고 소망하는 선(善)을 소유했을 때에 평온과 만족을 느끼며, 그런 기쁨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 행복에는 다소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표현이 기쁨이며,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행복을 가리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변하는 최고선(最口善)으로 알고 소망하는 하느님을 인간 이성으로 깨달을 때 그는 영적 기쁨 또는 영적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토마스아퀴나스). 이렇듯이 하느님의 생명인 기쁨은 온 누리에 용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와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가까이 계신 이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의 태어나심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의인(義人) 안에서 탄생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과 모습은 의인의 전형(典型)입니다. 제가 사목하면서 비 신자들로부터 들어온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의 전통적인 좋은 이미지는 ‘좀 고지식하지만,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이 오늘 복음의 의로운 삶과 밀접히 연결되지 않을까요? 군중과 세리와 군인들의 한결같은 질문인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시종일관 정의(正義)로운 삶입니다(11 절-14 절).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正義)를 말한다면 곧바로 인간의 불의와 죄를 엄격하게 벌하시는 무서운 심판관인 하느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 계시하는 하느님의 정의는 이와 반대로 하느님 자신이 당신의 의로움(義)을 인간에게 내려주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불의를 속량해 주시는 구속의 하느님 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16 절).

하느님은 정의를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들 안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루카 3,16).

<<양업문화교육원 참제자 지도신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을 나타내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는 오래도록 좋은 향기를 뿜어 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의 있고 없음, 학벌의 높고 낮음, 직업의 귀하고 천함, 잘생기고 못생김, 성격, 취향 등등.

현대는 너무나 빨리 변화를 추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오늘을 미처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내일을 꿈꾸며 점점 더 많은 욕심과 욕구로, 형제와 이웃이 경쟁을 하고, 갈수록 마음은 삭막해지고, 성격은 급하고 충동적이며, 별것 아닌 일에도 화내기 일쑤고, 앞뒤 생각 없이 말을 하여 상처를 주고, 때로는 비난 섞인 말로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간에 마음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을 경계하고, 불평과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누가나 아닌 내가 마음에 드는 이에게만 잘 해주고 싶어 하는 편협함을 보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지도 말며, 비겁하게 등 뒤에서 흉을 보지도 말며, 부끄러운 일에 침묵으로 동조하지 말며, 아집과 독선으로 무례함을 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잠재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으로 선불리 판단하지 말며, 부족함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용기를 실어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 상처보다 다른 이의 상처를 먼저 알아주고, 슬픔에 힘겨워 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실 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마음 깊이 들어가(침잠 沈潛)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가슴이 따듯 해 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감정 에너지는 심장(가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서 우리의 몸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약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하나, 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를 찾는 우리는 혼자라서 외롭고 때론 슬프기도 하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드러내 놓고 허심탄회하게 수다를 떨고 싶기도 하고, 상처를 위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기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하여, 눈을 마주치며 입가에 절로 웃음이 흘러 첫 만남일지라도, 서먹해하지 않고, 너, 나 구별 없이 하나로 묶어 놓는 소박한 나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기쁨과 슬픔, 고통, 상실감, 어둠과 희망 이 모든 위기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나눔은 비록 물질이 따르지 않더라도 가슴이 훈훈해지는 오랜 추억과도 같은 것이며 그 추억을 오래도록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소통이 상실되고, 물질이 만연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가난과 비움이며, 가난과 비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홀로 있음의 축복인 듯합니다.

홀로 있음이란 ‘영혼의 어두운 밤’ 즉 깊은 위기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과 생명을 위한 위기이며, 어둠을 통해 빛으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원천이 되며, 더 깊은 신앙, 더 강한 사랑을 향해 성장하는 기회가 되며, 하느님께 사랑 받는 체험을 넘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체험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영성은 오직 ‘낮아짐’의 순간에 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싹 트며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기억 하셨다’

고 했습니다. 가난은 덕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고, 과제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며, 주는데 그치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 받고 가슴 아픈 이들의 삶에 위험이 닥치거나 투쟁을 함께 해야 할 때, 그들을 버려두고 제도적 안정 속으로 뒷걸음질 치는 우리는 풍요로움에 익숙해져 스스로 하느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종류의 편견과 편애를 극복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나눔의 시각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눔의 은총과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를 기도 드립니다.

프라도 사제회 소개

<역사적 기원>

프라도 사제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리옹 교구의 사제 ‘앙트완느 슈브리에’를 통하여 교회에 내려 주신 은총의 결실이다. 1850년 주교로부터 리옹의 변두리 동네 ‘라기요티에르’로 파견된 슈브리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슈브리에 신부는 당시의 교회와 도시 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 있는 괴리를 보고 큰 고통을 느꼈다. 1856년에 일어난 홍수 때 다시 한 번 확인된 민중의 참상은 급기야 성 안드레아 본당 보좌 신부인 슈브리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1856년 성탄절 밤에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던 앙트완느 슈브리에에는 자신의 생애와 사제 활동의 방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데로 고정시켜 주는 빛을 받게 되었다. 슈브리에에는 이렇게 말했다. “프라도는 성 안드레아 본당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라고 가능한 한 가장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한 것은, 성탄절 밤에 우리 주님의 가난과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신 그분에 관하여 묵상하던 중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프라도사제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에 투신하는 교구 신부들의 공동체.

“프라도 사제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지닌 사도적 소명과 사명 안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재속회에 관한 교회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성좌 설립의 **재속 사제회**다. 본회는 사제들과 봉헌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제들은 재속 사제로서 그 사도적 사명을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있는 사제들로서, 주교들의 협력자들로서, 사제의 직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교구의 주교로부터 직접 교회법적인 사명을 받는다. 그리고 본회에 속한 봉헌된 평신도도 복음의 길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고 또 **복음화 임무**에 참여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이와 똑같은 소명을 수행한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써 자극을 받고 재촉을 받게 된 프라도회 회원들은 앙트완느 슈브리에 신부를 영신적 지도자로 삼고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투신하고자 한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며,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의 증거한다.

각 교구에서 서품을 받고 성사적 직분과 형제애를 함께 나누는 교구 사제단의 구성원들로서 프라도회의 사제들은 물질적, 영신적, 사목적인 면에서 교구 성직자 생활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주교의 사목적 직무에 협력한다. 프라도 사제회는 특수한 사도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특징지어야 할 사도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방향이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yangthomas@nave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9. 12. 12.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149	698,154,000	1,066	524,059,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가톨릭 명동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4억 원 중 회원님들의 협조로 12월12일 현재 총 3억8,200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은 1,800만 원 입니다. 2010년에 진입로 공사 및 피정의 집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주위에 권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매일 12시 정오에**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와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2009년 동계피정(12/19-12/20)**

2009년 양업문화 교육원 참제자 동계 피정이 12월 19(토)-20(일)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용인 성모영보수녀원 피정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금번 피정은 개인 피정 위주로 침묵으로 깊은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 신앙인학교 강의 결산**

5월9일부터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성북동 프라도 집에서 신앙 재교육 차원으로 시작된 신앙인학교가 10월31일 제21강의를 마지막으로 2009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연인원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순교자에 대한 영성과 자연과학도의 하느님 추구에 대하여 재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평화TV방송과 평화신문에서 PBC특강에** 저희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강의하여 주신 구요비 신부님, 박 광용 아우구스티노, 홍승수 라파엘 형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방송을 다시 보실 분은 pbc.co.kr 평화방송 사이트에서 PBC특강을 클릭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생명윤리에 대한 평화방송 프로그램**

진 교훈 원장님의 낙태와 저 출산,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관한 생명윤리 강의를 평화방송 프로그램 PBC특강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미사도구 봉헌에 대한 감사**

프라도 집에서 미사에 사용할 성작, 성반, 제의 및 영대를 봉헌하여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9월20일 마재성지 및 양근성지 순례**

신앙인학교 순교 강의에 맞추어 46명이 참석하여 남양주시의 정 약전성인과 정 약용 4형제의 생가 터인 마재 성지와 양평군의 권 철신, 권 일신성인의 고향인 양근 성지를 순례하였습니다.

*** 10월25일 고구마 및 무우 수확 감사축제**

49명이 참석하여 두미리 밭 터에서 고구마와 무우를 수확하여 감사의 미사를 봉헌하고 현지에서 고구마를 삶아서 드시고, 수확한 고구마를 한 보파리씩 배분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 **11월14일** 프라도사제회 한국 총회에 참석하신 국제 프라도 사제회 로베르 다비오 총장 신부님과 조세 아리스토 비에이라 부총장 신부님과의 미사와 만찬에 30여명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정 하상 교육관에서 진행된 한국 프라도 사제회 총회에서 구 요비 신부님이 한국 프라도 사제회 대표로 연임되었습니다. 3년의 연임기간 중 프라도 사제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도부탁 드립니다.